

지정학 리스크는 일시적, 달러-원 다시 하향 안정 기대

전일 동향: 강달러 진정, 엔화 강세에 연동되며 오름폭 축소

전일 달러-원 환율은 지정학 리스크 해소 국면에 강달러가 완화되며 1,390원 후반 마감. 야간장에서 1,400원까지 상승했던 달러-원은 지정학 리스크 완화에 1,400원을 하향 돌파. 이후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 보도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화도 연동. 다만 국내 외국인 증시 매도에 따른 커스터디 매수가 유입되며 1,390원 후반대 좁은 폭 등락 반복. 주간장 전일대비 6.6원 오른 1,397.5원 마감.

글로벌 시장 동향: 美 경제지표보다 연준 위원 발언, 日 부양책 주목

(미국채 금리 ↑) 전일 미국채 금리는 엇갈린 양상을 보인 경제지표와 연준 위원의 매파 발언을 소화하며 상승.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금리 상승과 하락 재료가 공존. 주간으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 다만 2주 이상 연속으로 청구된 실업수당 건수는 예상을 상회하며 고용시장 둔화 흐름 유지. 반면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집계한 제조업 지수는 예상을 큰 폭 하회 (10.3pt → -5.3pt로 급락). 다만 세부 지표를 보면 신규 주문이 감소한 영향이 크고, 오히려 물가 상승과 고용 개선이 전망되며 금리 상승 재료로 소화. 제조업 지수의 신규주문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영향에 선행지수도(LEI) 이달 하락. 대체로 혼조세를 보인 경제지표 영향에 미국채 금리는 연준 위원의 발언에 주목.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날 "내년에는 금리가 현재보다 낮겠으나, 중립금리에 가까워질수록 인하 속도는 늦춰질 수 있다"고 언급하자 단기물 중심 상승.

(달러 ↑) 달러인덱스는 미국채 금리 상승과 더불어 지정학적 우려가 더해지며 상승.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국산→영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를 타격한 데 이어, 러시아는 전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지정학 우려 확산. **(엔 ↑)** 반면 엔화는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대기하며 강세. 일본 정부는 오늘 22조엔 가량의 경기부양책 가량의 부양책을 마련할 예정. 또한 해당 부양책에는 임금 인상안도 포함될 것이라 기대감에 엔화 강세를 견인.

금일 전망: 상단 경계감, 엔화 강세 흐름에 달러-원 상고하저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장초반 1,400원 상회 후 오름폭 줄어들며 재차 1,400원 하향 돌파를 시도할 전망이다. 전일 달러인덱스는 107pt를 상향 돌파한 반면 달러-원 환율은 1,400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마감. 이에 장초반 역외 NDF 증가와 연동되며 상승 흐름이 우위. 다만 최근 꾸준히 1,400원 선에서 네고 물량이 출회되고, 외국인 포지션 플레이도 제한되며 상단 경계감이 작용했던 점을 감안, 오늘도 1,400원 상향 돌파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여기에 더해 일본의 장기금리가 상승하며 꾸준히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점도 달러-원 하향 안정에 일조할 것.

다만 여전한 수급부담, 지정학적 우려는 하단을 지지. 전일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발표를 불확실성 해소 재료로 소화하며 상승. 다만 최근 확대된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를 감안하면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지정학 리스크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잡음이 발생하는 만큼, 잠재적 달러-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일 예상 레인지 1,396-1,404원.

전일 국내시장 동향

종목	전일종가	전일비(원)	미결제약정 (계약)
USD/KRW (주간)	1397.5	▲6.60	-
USD/KRW (야간)	1402.0	▲11.10	-
USD412	1397.1	▲8.40	1,077,626
USD501	1395.2	▲8.30	30,766

전일 해외시장 동향

종목	전일 종가	전일비(bp, %)	1W(bp, %)
UST 2Y	4.3487	▲3.43	▲0.39
UST 10Y	4.4218	▲1.18	▼1.36
USD Index	106.97	▲0.27	▲2.80
EUR/USD	1.0474	▼0.66	▼3.27
USD/JPY	154.54	▼0.58	▲1.78
USD/CNH	7.255	▲0.05	▲1.83

차트1. 허리케인 영향 지나가며 신규는 안정, 구직 기간 길어지며 연속청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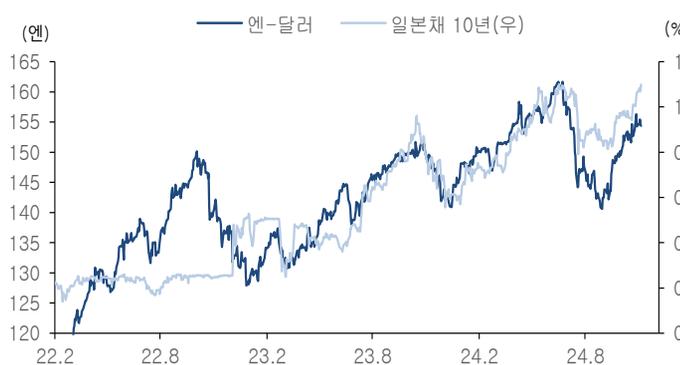
출처: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2.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현재지수와 전망지수 큰 폭 괴리 발생



출처: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3. 일본 재정확대 기대감에 일본 국채금리 상승, 엔 강세



출처: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표1. 글로벌 금융시장

종목	증가	전일비(%)	1M	YTD	종목	증가	전일비(bp)	1M	YTD
주식					채권				
DowJones	43870.35	1.06	3.53	16.40	미국채 2년	4.3487	3.43	27.00	9.88
S&P500	5948.71	0.53	2.39	24.72	미국채 10년	4.4218	1.18	21.00	54.27
Nasdaq	18972.42	0.03	3.02	26.39	미국채 30년	4.6014	0.39	12.75	57.32
FTSE	8149.27	0.79	(1.45)	5.38	국고채 3년	2.842	(3.30)	(4.80)	(30.30)
DAX	19146.17	0.74	(1.53)	14.29	국고채 10년	2.982	(3.10)	(8.90)	(35.50)
KOSPI	2480.63	(0.07)	(3.89)	(6.58)	일본채 10년	1.099	2.20	13.50	48.50
Nikkei	38026.17	(0.85)	(0.21)	13.63	중국채 10년	2.083	(0.60)	(7.40)	(47.40)
CSI 300	3989.30	0.09	1.54	16.27	독일채 10년	2.316	(3.30)	5.10	29.50
HSI	19601.11	(0.53)	(4.34)	14.98	영국채 10년	4.4421	(2.61)	20.63	91.23
원자재					원자재				
WTI	70.10	1.79	(0.13)	(2.16)	금	2669.72	0.72	(2.43)	29.41
천연가스	3.34	4.57	32.39	32.82	은	30.79	(0.21)	(8.60)	29.39
철근	3343.00	0.39	4.21	(17.25)	구리	휴장	-	-	-

출처: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표2. USD Futures 투자자별 매매 동향

구분	순매수(전일)	5일 누적	20일 누적
외국인	(3,278)	(15,367)	27,068
기관	14,039	(6,766)	(23,199)
개인	(8,359)	10,610	(2,823)
금융투자	20,665	(10,671)	(27,167)
은행	(745)	7,610	(3,435)
기타법인	(2,402)	11,523	(1,046)

출처: Infomax, NH선물 리서치센터

표3.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구분	순매수(전일)	5일 누적	20일 누적
KOSPI	(386)	7,762	(15,918)
KOSDAQ	(7,072)	(11,178)	12,430
채권계	(2,440)	(5,299)	49,559
KTB_03	21,402	37,703	24,337
KTB_10	3,699	19,164	(271)
K200 선물	(2,305)	(2,874)	(12,135)

출처: Infomax, NH선물 리서치센터

표4. 국내외 단기금리

국내	증가	전일비	미국(SOFR)	증가	전일비
기준금리	3.25	0.00	기준금리	4.75	0.00
RP 7D	3.27	(15.00)	1M	4.59	(0.74)
CD	3.44	0.00	3M	4.52	0.70
통안채 3M	3.05	(0.50)	6M	4.43	1.05
통안채 1Y	2.82	(1.90)	12M	4.29	3.02

출처: Infomax,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표5. FX Swap Point

만기	Mid	전일비
1M	-1.5	0.05
2M	-3.65	(0.10)
3M	-5.55	0.05
6M	-12.00	(0.10)
12M	-24.90	(0.10)

출처: Infomax, NH선물 리서치센터

표6. CRS / IRS

CRS	Mid	전일비	IRS	Mid	전일비
1Y	2.46	(1.00)	1Y	3.07	(4.00)
2Y	2.31	(2.50)	2Y	2.92	(3.75)
3Y	2.30	(2.50)	3Y	2.86	(3.75)
4Y	2.27	(2.00)	4Y	2.85	(3.50)
5Y	2.23	(2.00)	5Y	2.84	(3.50)

출처: Infomax,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표7. CDS Premium

만기	Mid	전일비
1M	33.95	0.40

출처: Infomax, NH선물 리서치센터

표8. 주요국 환율

종목	증가	전일비(%)	1M	YTD	종목	증가	전일비(%)	1M	YTD
USD Index	106.97	0.27	2.80	5.67	USD/KRW	1398.60	(0.13)	1.31	8.58
EUR/USD	1.05	(0.66)	(3.27)	(5.31)	USD/CNH	7.26	0.05	1.83	1.92
USD/JPY	154.54	(0.58)	1.78	9.29	USD/HKD	7.78	(0.01)	0.16	(0.40)
GBP/USD	1.26	(0.50)	(2.97)	(1.13)	USD/TWD	32.55	0.16	1.44	6.01
USD/CHF	0.89	0.28	2.43	4.96	USD/SGD	1.35	0.25	2.15	1.98
AUD/USD	0.65	0.08	(1.94)	(4.67)	USD/THB	34.64	(0.23)	2.88	1.46
NZD/USD	0.59	(0.29)	(2.58)	(7.45)	USD/TRY	34.49	0.06	0.70	17.09
USD/CAD	1.40	(0.01)	0.86	5.63	USD/MXN	20.42	0.70	3.07	2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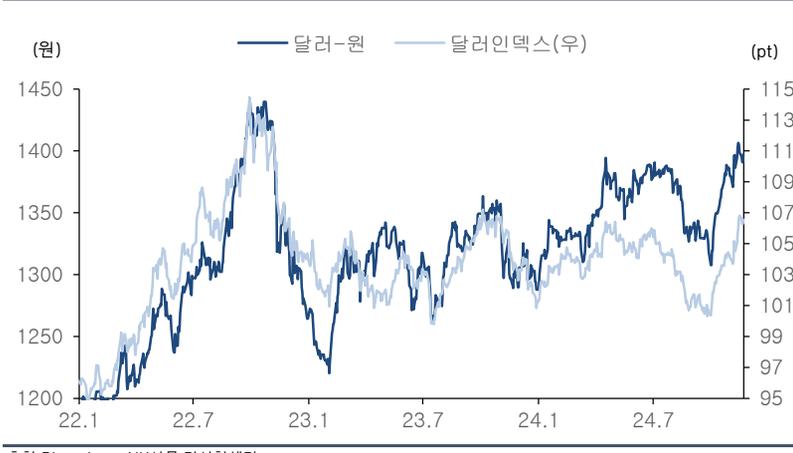
출처: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표9. 경제지표

전일
22:30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실제:21.3만, 예상:22.0만, 이전:21.7만)
22:30 미국 11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실제:-5.5, 예상:6.3, 이전:10.3)
24:00 미국 10월 기존주택판매 (실제:396만, 예상:395만, 이전:384만)
24:00 미국 10월 경기선행지수 (MoM) (실제:-0.4%, 예상:-0.3%, 이전:-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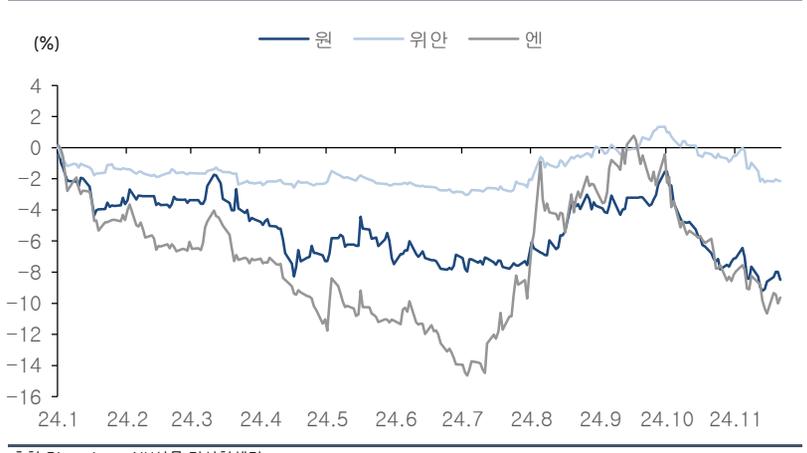
금일
08:30 일본 10월 CPI (YoY) (예상:2.2%, 이전:2.4%)
09:30 일본 11월 제조업 PMI (잠정) (예상:49.5, 이전:49.2)
09:30 일본 11월 서비스업 PMI (잠정) (이전:49.7)
16:00 영국 10월 소매판매 (MoM) (예상:-0.3%, 이전:0.3%)
16:00 독일 3분기 GDP (QoQ) (예상:0.2%, 이전:-0.1%)
23:45 미국 11월 제조업 PMI (잠정) (예상: ,이전:48.5)
23:45 미국 11월 서비스업 PMI (잠정) (예상: ,이전:55.0)
24:00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 (예상:73.0, 이전:70.5)

차트4. 달러-원 vs 달러인덱스



출처: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5. 아시아 통화 연초대비 통화가치 추이



출처: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6. 외국인 통화선물(달러) 순매수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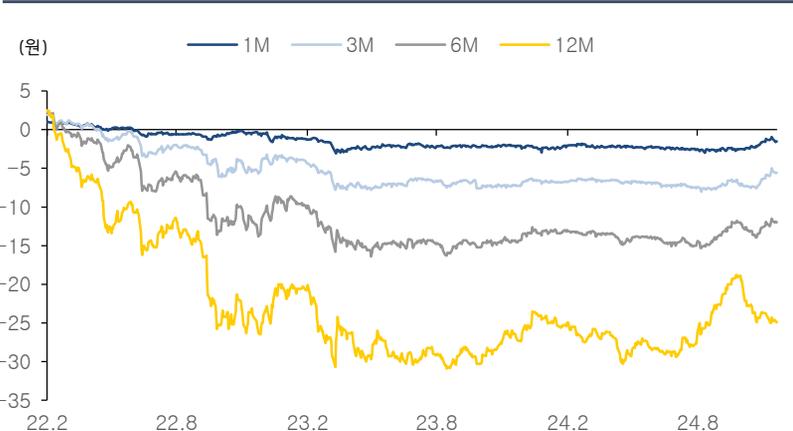
출처: Infomax,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7. 외국인 국내 증시 순매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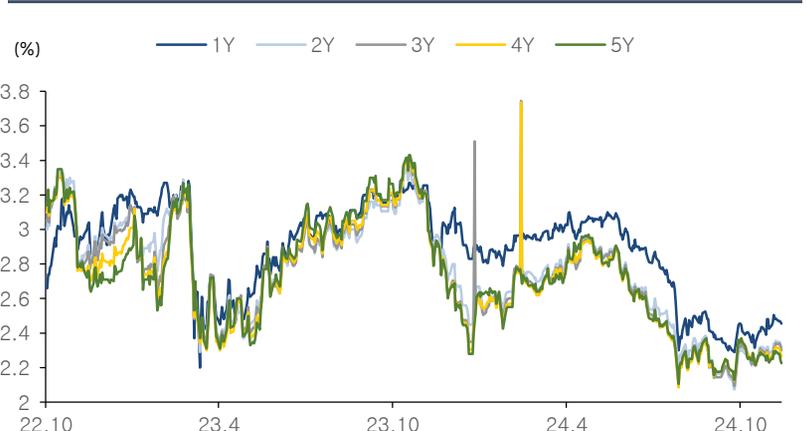
출처: Infomax,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8. FX Swap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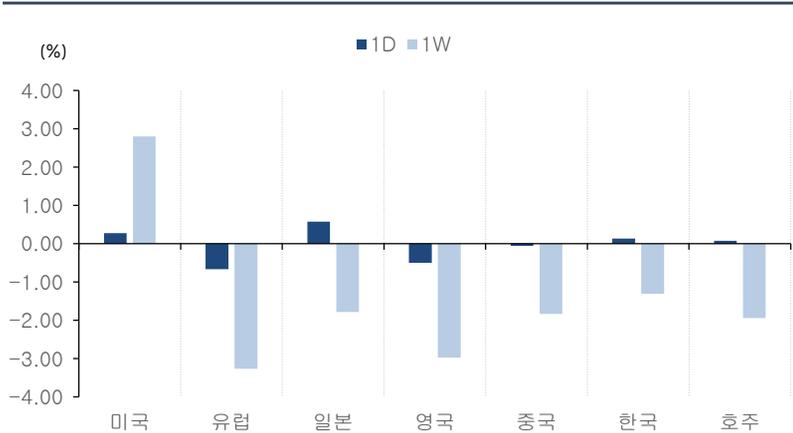
출처: Infomax,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9. CRS(SO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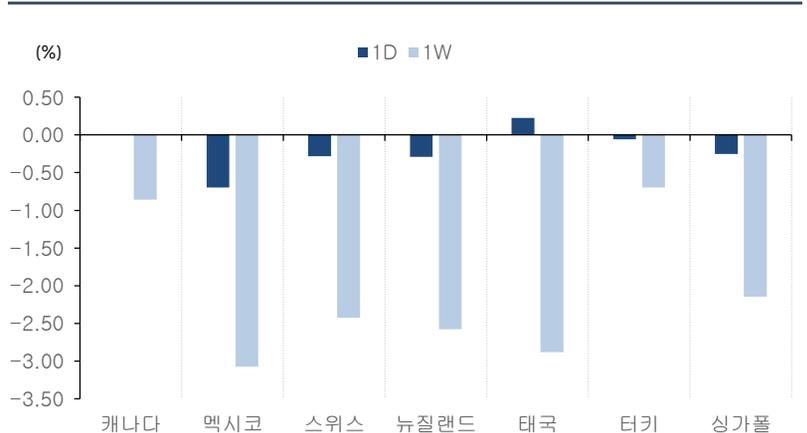
출처: Infomax,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10.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 (1)



출처: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11.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 (2)



출처: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파생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초과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futures.co.kr)